

문 1. 경주 안압지, 월성 해자, 함안 성산산성, 부여 궁남지에서 발견된 고대의 기록을 전하는 유물은?

① 비문 ② 목간 ③ 경판 ④ 불상

정답: ②

* 고대의 기록 유물 목간

현재 삼국시대까지 소급되는 문자 자료는 약간의 금석문(비문)과 목간자료 뿐이다. 목간은 문서나 편지 등의 글을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또는 대나무 조각에 적은 것이다.

고대의 목간은 아직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고대사의 정치 사회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는 동일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유물의 절대연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경주 안압지: 51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간지와 연호가 사용된 목간을 분석해 볼 때 이들의 사용 시기는 대체로 8세기 중엽쯤으로 동궁(東宮) 관련 의 것과 일부는 안압지의 개수공사에 관련된 자료로 추정된다.

월성 해자: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약 30점의 목간에는 하찰(荷札: 조세물품에 붙여진 부표) 목간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관청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다. 최근 옥살(褥薩)이란 관명이 기록된 고구려 목간이 발견되어 고구려 지방통치 연구에 매우 긴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 6세기 후반 경의 27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성을 축조할 때 여러 지방에서 보낸 곡식과 화물의 하찰(荷札)들로 밝혀졌다.

부여 궁남지: 이 곳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부명(部名)이 보이고 있어 백제 왕도(王都) 연구에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의 사용 시기는 늦어도 6세기 중엽에서 8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문 2. 가야의 흥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야는 백제 및 왜와 연결하여 신라와 맞서기도 하였다.
- ② 낙동강 하류의 변한 12국에서는 청동기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연맹왕국이 출현하였다.
- ③ 가야는 일본의 큐슈 지방과 가까워 그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소국을 건설하였다.
- ④ 김해지방 가야세력은 철의 생산과 벼농사 발달 및 해상교통의 유리함에 힘입어 전기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잡았다.

정답: ②

* 가야 연맹의 역사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2개국).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큐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특히 가야는 일본의 큐슈 지방과 가까워 그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소국을 건설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비옥한 평야와 해상 활동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철의 생산 및 교역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김해 지방에는 질 좋은 철이 많이 나서 각종 철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덩이쇠를 만들어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야는 낙동강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신라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자,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를 견제하였다.

그러나 400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왜군과 싸우는 신라를 돕기 위해 5만의 군대를 보내어

가야 지역을 공격해 오자, 금관가야는 큰 타격을 입어 맹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문 3. 조선의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을 중심으로 방위 명을 붙인 면(面)이 출현하였다.
- ② 부민고소금지법을 제정하여 지방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 ③ 사족(士族) 세력이 강한 지역에 토관(土官)을 임명하였다.
- ④ 원악향리처벌법을 제정하여 향리(鄉吏) 세력을 억압하였다.

정답: ③

* 조선의 지방 제도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목·군·현(또는 주·부·군·현)을 나누어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주·부·군·현은 각기 읍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면과 같이 몇 개의 방면으로 면을 나누고 이러한 면 밑에 리·촌·동의 자연촌이 부속되었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선은 안렴사(안찰사)와 감무(속현 수령)를 2품 이상의 관찰사와 사류 출신의 현감으로 대치하는 등 관찰사와 수령의 직급을 올리고 장기간 근무케 하는 외관구임법(外官久任法)과 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을 실시하는 등 왕권의 대행자인 외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키고 향리의 작폐와 토호적인 향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악향리처벌법(元惡鄉吏處罰法)을 제정하여 향리 세력을 억제하였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③ 대동강~원산만 이북 지방에는 원래 토성이 없었었다. 이 지방에는 가리(假吏: 타 지방서 전입온 향리)가 있을 뿐 향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평양 함흥 등과 같은 양계지방의 주요 진(鎭)에는 향리 대신에 지방의 유력층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토관(土官)을 설치했다.

문 4.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의 새로운 경제현상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두 곳은 금맥이 다 하였고 세 곳만 금맥이 풍성하였다. 지난해 장마가 심해 광꾼들 대부분이 흩어졌다. 올해 여름 새로이 39곳의 금혈을 팠는데, 550여명의 광꾼이 모여들었다. 일부는 도내 무뢰배들이었지만, 대부분은 사방에서 이득을 좇아 몰려온 무리이다. - 비변사등록 -

-----<보 기>-----

- ㄱ. 민간 수공업자들이 상인자본으로부터 주문뿐만 아니라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 ㄴ. 덕대가 상인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를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였다.
- ㄷ. 관장들은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 ㄹ. 공장안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류, 가구류, 금은 세공품 등을 제조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①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수공업, 광업)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시장 판매를 위한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는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대동법의 실시로 관수품의 수요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 경쟁력도 높았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대체로 작업장과 자본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처분에서 상업 자본의 지배를 받았다. 대부분 공인이나 상인에게 주문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설점수세제). 이에 따라 민간인에게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광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말에는 거의 70개소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상업 자본이 채굴과 제련이 쉬운 사금 채굴에 몰리면서 금광의 개발도 활발해졌다. 광산의 개발은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몰래 채굴하는 경우도 성행하였다(잠채).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작업 과정은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 조선 전기에는 고려보다 관영 수공업 체제를 잘 정비하였다. 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 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의 각급 관청에 속하게 하고, 이들에게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 공급하게 하였다. 관청에 등록된 장인(관장)들은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에 식비 정도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판매하여 가게를 꾸렸다. 이 기술자들은 부역으로 동원되는 기간 이외에는 사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관영 수공업은 16세기에 들어와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문 5. 한국 근대역사학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제의 관학파 역사학은 한국 근대역사학 성립에 큰 공헌을 하였다.
- ② 정인보, 안재홍 등의 조선학 운동은 최남선의 역사학을 계승한 것이었다.
- ③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이론적인 틀을 표방하였다.
- ④ 백남운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학을 표방하면서 계급과 민족을 같은 비중으로 인식하였다.

정답: ③

* 한국 근대역사학

일제의 관학자들이 주도한 식민주의사학은 한국사의 왜곡과 말살에 뜻을 두고 있었다. 즉 식민주의사학은 타율성과 정체성을 내세우며 일제의 한국 침략의 정당성과 그 지배의 합리화를 기도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 식민주의사관이 극성을 부렸는데, 민족주의사학뿐 아니라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 역시 그 극복을 추구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사학자들은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 연구 방법론이 체계화되어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실증주의 사학이 대두하였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국사의 발전 주체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학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박은식(1859~1925)은 대한 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면서, 개항기 역사(1863~1910)를 다루며 국혼 사상을 언급한 ‘한국 통사’(1915)와 1884~1919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다루며 국혼, 국백 사상을 역설한 ‘한국 독립 운동 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즉, 그는 일제에 빼앗긴 것은 ‘국백’뿐이요, ‘국혼’이 살아있으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신채호(1880~1936)는 우리나라의 상고 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책인 조선상고사(1931)에서 종래의 한국사의 인식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체계를 수립하였다. 종래의 단군·기자·위만·삼국으로의 계승과 단군·기자·삼한·삼국으로의 계승되는 인식체계를 거부하고 대단군조선·고조선·부여·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역사를 (아)我和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일천년대 제일대사건’으로 크게 평가하고 화랑도의 사상을 ‘낭가사상’이라 하며 우리 고대 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다.

한편, 조선 ‘얼’을 강조한 정인보와 조선 ‘심’을 강조한 문일평과 안재홍 등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반대하고 협조를 거부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1930년대에는 백남운, 이청원 등에 의해 유물사관(역사를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 과정으로 파악하며 계급성을 강조)에 입각한 사회 경제사학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사학이나 식민주의사관을 특수사관으로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조선경제사회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上)을 저술한 백남운은 한국사의 경제적 사회구성의 단계를 원시공산제사회 - 노예제사회(삼국 정립기) - 아시아적 봉건제사회(삼국시기 말부터 최근세) - 외래자본주의사회(일제하 현재)로 전개되었다고 보며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고, 또한 민족주의 사관에 대해서도 조선문화사의 독자적인 소우주로서 특수화하려는 기도이고 지나치게 조선사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적 법칙의 공통성을 거부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실증사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물론 일제의 관학자들이 실증을 가장하여, 합리주의의 명분 아래 식민주의사학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었다. 한편 한국 학자들이 세운 국학 연구 단체인 랑케의 사관을 강조한 이병도와, 민속학 연구의 전문가인 손진태 등이 세운 진단 학회를 중심으로 실증주의 사학도 발달하였다.

② 최초의 문학 잡지인 ‘소년’(1908)을 창간한 최남선(1890~1957)은 소년들에게 애국주의적 국사와 지리·문학을 가르쳐치며, 박은식, 현채 등과 함께 신민회의 출판사업 외곽단체로 1910년 10월 ‘조선광문화’(1910)를 조직하여 역사, 한글, 지리에 관한 여러 고전의 보존과 간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민속학 연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계의 여러 민족의 공통된 신앙, 즉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단군신화를 이해하여 ‘불함문화론’을 주창하는 등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역사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3·1운동으로 구금 투옥되고 나서 석방된 뒤 계속 일제의 감시·규제를 받아 친일의 길을 걸으며 식민지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긴 한국사 연구기구인 조선사편수회에 관계를 가졌고, 이어 만주 건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에는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하는 언론 활동도 하게 되었다.

문 6.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동호(東胡)의 유적에서도 비파형동검문화가 발견된다.
- ㄴ. 은(殷)이나 주(周)의 청동기문화와 구별되는 개성을 지녔다.
- ㄷ. 농경이 널리 행하여져 경제생활에서 농업의 비중이 커졌다.
- ㄹ. 내몽고지역 오르도스식 청동기와 문화계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청동기 문화

청동기 중에서 오랜 기간 여러 지역에서 제작되어 유라시아 대륙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은 단검이다. 그런데 단검은 제작 집단과 시기에 따라 그 형식적 변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청동 유물의 지역성과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표지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제작 보급되었지만, 인접한 남부시베리아·오르도스지역에서 발견되는 북방식단검은 자루끝을 동물 모티프로 장식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황하 중하류를 중심으로 한 은(殷)·주(周) 시대의 동검은 검자루는 원주형이고, 그 끝에는 삿갓모양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북방식·중국식 단검이 낱과 자루를 통째로 주조한 반면에, 비파형·세형단검은 별도로 주조한 별주형(別鑄型)이다. 만주 - 한반도 출토의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갖는, 주변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예맥족의 동검과 관계된 유물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비파형동검이 많이 출토되는 요녕 지역은 산융·동호·(예)맥 등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고, 요서 지방의 청동기 문화에는 북방계 요소가 강하게 있어, 그 담당자가 예맥과 고조선과는 다른 북방 유목민족, 즉 동호(東胡)의 문화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요녕 청동기문화의 중심인 정가와자 유적에 속한 사회는 농경을 주로 하고, 어로와 수렵이 보조가 되는 생활을 하였고, 기록에 보이는 동호족의 거주지역과 요령식 동검의 생성배경 등을 고려한다면, 동호족과 같은 유목민족보다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여러 문화요소를 융합할 수 있는 농경민족(예맥·숙신 등)의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문 7. 중앙군의 군사조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
 - ㄴ. 국왕의 친위부대인 2군과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담당하는 6위
 - ㄷ.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민족융합을 꾀한 9서당
 - ㄹ.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의 5군영
-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ㄴ - ㄱ - ㄷ - ㄹ
- ③ ㄷ - ㄱ - ㄴ - ㄹ
-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④

* 역대 중앙군 조직

통일신라: 중앙군의 핵심은 9서당이였다. 서당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람은 물론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기도 하였다.

고려: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조선 전기: 중앙군은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로 구성되고, 그 지휘 책임은 문반 관료가 맡았다. 중앙군은 정군을 중심으로 갑사나 특수병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후기: 중앙군은 기존의 5위에서 점진적으로 5군영 체제로 변화되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4). 훈련도감의 군병은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

훈련도감에 이어 대외 관계와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이 설치되었고, 숙종 때에 금위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17세기 말에는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문 8. 삼국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다음의 사료와 관계가 없는 것은?

-
- . 세(稅)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다. 조(租)는 상호(上戶)가 1섬이고, 그 다음이 7말이며 하호는 5말을 낸다. (.수서. 고구려전)
 - . 세는 포목, 명주실, 삼, 쌀 등을 내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 (.주서. 백제전)
 - . 2월에 한수 북부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

- ① 농사가 흉년일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삼국시대의 조세는 곡물과 포가 중심인데, 특정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 ③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는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 ④ 삼국시대의 조세는 대체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부과하였다.

정답: ①

* 삼국시대의 수취제도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면서 조세 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세는 대체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를 거두었으며, 그 지역의 특산물도 거두었다. 왕궁, 성, 저수지 등을 만드는 데에 노동력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하였다.

아울러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과 고구려에서는 흉년일 때에 진대법(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함)과 같은 구휼 정책을 시행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여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고, 황무지개간을 권장하여 경작지를 확대하였으며, 저수지를 만들거나 수리하여 가뭄에 대비하였다.

- ① 성덕왕 때(722)에 백성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정전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하

고,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국유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연수유전답).

문 9. 다음은 조선 후기 이후의 사회적·민족적 모순을 설명한 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은 두 가지 대립이 기본이 되고 있다. 하나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 수취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와 농민층이 대립하는 문제였다. 여기에 더하여 ㉢개항 이후에는 열강의 경제적 침투에 따른 민족적 모순이 겹쳐지게 되었다.

- ① 임오군란은 ㉡으로 인해 야기된 사건이다.
- ② 홍경래의 난은 ㉢으로 인해 일어났다.
- ③ ㉠과 ㉡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임술농민봉기이다.
- ④ 광무개혁으로 ㉠과 ㉢이 해결되었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이후의 사회적·민족적 모순

임오군란(1882): 개항(1876)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지는데다가, 때마침 1882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 따라서 이는 열강의 경제적 침투에 따른 민족적 모순으로 볼 수 있다.

홍경래의 난(1811):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해 삼정의 문란(조세 수취의 문란)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봉기였다(1811). 홍경래 등은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

으로 광부, 품팔이꾼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다. 반군은 한때 청천강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임술농민 봉기(1862):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토지의 집중현상은 더욱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농민 중에서도 상품화폐경제를 잘 이용한 자는 부농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주로 변신하기도 하고, 상인 중에서도 축적한 부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고리대를 통해서도 토지매입이 늘어났다. 농민들은 부세부담이나 생계를 위해 고리대를 쓸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토지를 내놓게 되었고 반면 이를 운영했던 지주·상인·부농층은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늘어나갔다. 1862년 임술농민봉기 시기에는 더 심화되어 한 읍 가운데 수백 결의 토지를 겸병한 지주가 큰 읍일 경우 20~30명, 작은 읍이라고 하더라도 7~9명이 될 정도였다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농민들은 탐관오리와 토호의 탐학에 저항하여 한때 진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항거는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러한 저항 속에 농민들의 사회 의식은 성장하였고, 농민들의 항쟁으로 말미암아 양반 중심의 통치 체제도 점차 무너져 갔다.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1898~1904): 대한 제국은 광무개혁(1897~1904)의 일환으로 조세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전 사업(양지아문, 1898)과 일부 지역(강원과 충남 일부 지역)에 지계 발급 사업(지계아문, 1901)을 실시하였다(1902. 지계아문을 양지아문으로 통합). 그러나 조선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은 아관 파천(1896.2)을 계기로 대한제국기에 본격화되어. 열강들은 저마다 최혜국 조항을 내세워 광산, 삼림 등의 자원을 비롯하여 철도, 전차, 전기, 전신 등 교통과 통신 부분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문 10. 고려시기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계원리에 따라 거주와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졌다.
- ② 문벌귀족은 근친혼을 선호하여 사촌혼이 성행하였다.
- ③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상복(喪服) 규정이 같았다.
- ④ 여러 명의 처를 두는 민간의 풍습을 법률로 금지하였다.

정답: ③

* 고려시대의 가족제도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충렬왕대에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법제화가 시도되다가 중지되기도 하면서 국가적으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인되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고려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원리에 따라 거주와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졌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솔서제),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② 고려 왕실에서 극도의 근친혼을 하였듯이, 양반·귀족층에서도 이와 유사한 혼인이 성행하였다. 내외 4촌간(4촌혼)이나 6촌간(6촌혼)에 혼인을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자주 내려지는 것으로 미루어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금지 조항은 주로 양반·귀족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문벌귀족들 사이에 근친혼을 선호하여 사촌혼이 성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이다.

문 11. “이 피리를 불면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낮고 물결은 평온해진다.”는 피리가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시기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종 대신 선종이 크게 유행했다.
- ② 녹읍을 폐지하고 세조(歲租)를 지급했다.
- ③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했다.
- ④ 한강유역과 동해안 등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정답: ②

* 만파식적과 신문왕대의 역사적 상황

•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감은사(682)를 짓고 추모하는데, 죽어서 바다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이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의 군사는 물러가고, 병은 낮고, 물결은 평온해졌다고 한다(만파식적).

• 신라 중대의 전제군주인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고 세조(歲租) 즉 녹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689).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① 신라 말에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③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④ 진흥왕(540~576)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동해안 지역을 통하여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문 12. 일제 강점기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10년대 간도에서 경학사가 운영한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②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은 한말의 국채보상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 ③ 1930년대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강우규와 김상옥의 의열투쟁을 지원하였다.
- ④ 1940년대 해방을 앞두고 비밀결사인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정답: ③

* 일제 강점기 민족독립운동

① 1910년대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회영 등의 신민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11년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간부 양성을 하여, 후일 서로군정서가 조직되었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 등의 단체가 주축이 되어 북로군정서를 발족시켰다.

② 1920년대에는 회사령 폐지로 인해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나라 빛을 밝히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1907)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족적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다.

③ 3·1 운동 이후 조선 총독부 고관, 매국노, 친일파 등의 처단과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표로 활동한 의열 투쟁이 있었다.

김원봉 등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1919). 단원들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1923)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과(1932.1)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의열 투쟁 일지>

- 1919 강우규(대한 노인단),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투척
- 1920 박재혁(의열단), 부산 경찰서에 폭탄 투척
- 1921 김익상(의열단),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
- 1922 오성륜·김익상(의열단), 일본 대장에게 폭탄 투척

1923 김상옥(의열단),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
 1924 김지섭(의열단), 도쿄 궁성에 폭탄 투척
 1926 나석주(의열단),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식산은행에 폭탄 투척
 1928 조명하(무), 타이중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장인 구니노미야 구니히코(육군 대장) 척살
 1932 이봉창(한민애국단),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본 왕 폭살 기도
 1932 윤봉길(한민애국단),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 투척

④ 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은 국제 정세의 변동과 일본군의 세력 위축을 이용하여 항일 투쟁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나라를 재건하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김구가 이끄는 임정 기반의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김두봉 등의 사회주의자들이 연안에서 결성한 조선 독립 동맹도 일제의 축출 후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남녀평등권의 확립, 대기업의 국영화와 토지 분배의 실현 등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국내에서는 중도 좌익 계열의 여운형 등의 민족 지도자들이 비밀결사 형태로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1944. 8.). 이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강령을 마련하였다.

문 13.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존하는 신라촌락문서에 의하면, 호(戶)는 3등급으로 인구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 ② 고려는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했다.
- ③ 조선 세종대에는 연분6등법과 전분9등법을 제정해 조세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 ④ 임진왜란 이후 공납의 폐단이 더욱 심해지자 균역법을 시행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정답: ②

* 역대 수취 제도

① 통일신라기에 촌주는 촌락마다 그 지역의 토지 크기·인구 수·소와 말의 수·특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민정문서)를 3년마다 만들고, 조세·공물 부역 등을 거두어 국가에 바쳤다. 여기에 따르면 토지는 논·밭 촌주위답·내시형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가호·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이동 등 변동 내용을 소와 말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도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② 고려에서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즉 휴경의 유무와 횟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不易, 一易, 再易).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③ 조선의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마련하고(1444)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 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④ 조선 중기 이후 농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던 것은 공납이었다. 방납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갔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조치는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1750)으로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문 14. 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황무지 개간요구 반대투쟁을 벌인 보안회는 협동회로 발전하였다.
- ② 미주의 한국교민은 장인환·전명운 의거를 계기로 국민회를 결성하였다.
- ③ 안창호, 이승훈, 이동녕 등이 조직한 신민회는 공화정체를 주장하였다.
- ④ 대한협회는 일제가 헤이그 특사파견을 구실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자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답: ④

* 대한제국 시기(1897~1910) 국권회복운동

을사조약(1905.11)을 전후로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에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 계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개화 운동과 독립 협회 활동의 맥을 잇는 애국 계몽 운동은 교육 구국 운동, 언론 계몽 운동, 민족 산업 진흥 운동, 국학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보안회(1904):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1904.6) 송수만, 심상진 등이 서울에서 보안회를 조직하여(1904.7) 반대 운동을 벌였다.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철회의 약속을 받고 해산하였지만, 보안회 도총무였던 이준을 중심으로 대한협동회(1904. 9)가 결성되어 일본의 황무지에 대한 야욕을 확실하게 완전 저지시켰다.

헌정 연구회(1905): 독립협회 계승.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적 정치 체제의 수립과 민권 확대 주장,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일진회에 맞서다가 해산

대한 자강회(1906.4): 헌정 연구회의 후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 전개. 일제가 헤이그 특사파견을 구실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해산.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대한자강월보'를 발행기도 함. 대한협회로 계승

대한협회(1907.11): 국가의 부강,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추구하였고, 관인 폐습의 교정, 근면 저축의 실행, 권리·의무·책임·복종 등 국민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였다.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와 제휴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기도 하였다

신민회(1907~1911): 통감부의 탄압으로 정치 활동이 어려워지자 양기탁,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어 비밀 결사 형태로 신민회를 결성하였다(1907.4). 각계각층이 참여하면서 8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한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에 바탕을 둔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세워 문화 활동과 민족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서간도 삼원보)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으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② 1908년에 장인환,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의거를 계기로 동포 사회에 애국심이 고조되자 미주 지역 한인 단체를 통합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1910).

문 15. 1926년 발표된 다음 선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족주의적 세력의 대두로 인하여 전개되는 정치적 운동의 경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필요적 과정의 한 형세인 이상 우리는 냉연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없다. (중략)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후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① 이 선언은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② 이 선언에 자극 받아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집필하였다.

③ 이 선언이 발표된 이후 실력양성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④ 이 선언은 비타협적 민족진영인 연정회의 지지를 받았다.

정답: ①

* 정우회 선언(1926)과 좌우합작단체 신간회의 결성

‘先실력양성 後독립’의 민족개조론(1922)을 주장하던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1923) 발표 하자 이후 자치론(타협적 민족주의)이 확산되었다. 1924년 초의 자치론은 동아일보의 송진우 등과 천도교의 최린이 중심이 되어 여론을 떠보고, 연정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려 하다가 강한 반발 여론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다.

1926년 후반,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를 조직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던 천도교 신파의 최린과 동아일보사의 김성수, 송진우 등은 다시 비밀리에 자치운동단체를 조직하려 하였다. 물론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들의 자치운동단체 재결성 움직임은 신간회를 발기시키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조선물산장려회계)들은 사회주의자(서울청년회)와 연합하여 조선민흥회를 만들었다(1926.7). 한편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의 단체 중 하나인 정우회는 1926년 11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 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정우회 선언). 이 제안이 조선민흥회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좌우합작의 합법적 단체 신간회가 결성되었다(1927.2).

문 16.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한반도와 요동이 한국사의 무대라고 생각하여 만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저서를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전통을 강조하면서 만주 수복을 희구하였다.
- ②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지방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증하였다.
- ③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병립시켜 남북국시대라고 할 것을 제안하였다.
- ④ 안정복은 <열조통기>에서 한반도에 비정되어 온 고대의 여러 지명이 사실은 만주에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고증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만주에 대한 관점

동사(1803): 소론계 양명학자인 이종휘(1731~1797)가 쓴 기전체(본기.세가.열전.지.표 구성) 역사서. 민족의 기원을 단군 - 기자 - 삼한으로 출발하여 조선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부여와 발해를 민족의 고토로 인식하고 나아가 고구려를 중심축으로 서술하였다. 발해사를 최초로 서술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군 조선을 본기로 서술하고 열전과 지는 고구려 중심으로 서술하여 고구려 전통을 강조하면서 만주 수복을 기원하여 반도 사관을 탈피하였다. 또한 역사와 지리를 결부하여 고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동국지리지(1615): 서경덕(漢黨) 계열의 한백겸(1552~1615) 리서. 문헌고증과 답사의 방법으로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증하여, 고구려의 발상지가 평안도 성천이라는 통설을 뒤집고 만주 지방이라는 것을 처음 고증하였고, 삼한의 위치도 고증하여 객관적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발해고(1784): 서얼 출신이자 규장각 4검서관 출신이며 북학파 실학자인 유득공의 발해시대 역사서. 그는 이 책에서 반도사관 탈피와 남북국 시대를 설정하였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백제와 신라를 대등한 국가로 인사하여,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고려가 발해사를 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던 여진·거란에 대해 영토적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열조통기(1776년 직후): 안정복이 저술한 야사형 당대사. 조선 태조로부터 영조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다. 편찬자가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인 《동사강목》을 편찬한 뒤, 그 뒤의 역사를 체계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책의 편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봉유설(이수광, 1614): 중국을 사실 이상으로 큰 나라로 보는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과 문화 수준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것과 한사군이 조선 땅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 비정해 온 고대의 여러 지명이 사실은 만주에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고증하여 잃어버린 만주 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문 17. 다음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되어 발전한 불교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백제 및 고구려 유민에게 연결되어 후기 신라 불교계의 지역적인 분화를 가져온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밀교는 민간에서 현세구복적 신앙과 조화를 이루어 성행하였다.

② 법상종은 미륵불이 지상에 이상세계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었다.

③ 계율종은 승려들의 생활기준으로서의 계율을 강조하고 종교를 통한 인심의 통일을 목표하였다.

④ 화엄종은 모든 우주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정답: ②

*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사상

삼국시대의 불교는 때로는 개인의 구복신앙을 엿볼 수 있었지만, 이 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비는 호국신앙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러므로 호국경전으로 유명한 <인왕경>은 특히 귀중하게 여겨졌다. 이 <인왕경>의 설에 의하여 백좌강회(인왕회)라는 국가의 태평을 비는 의식이 행하여졌으며 팔관회도 역시 호국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많은 사원 중에서도 신라의 황룡사나 백제의 왕흥사 등은 모두 호국의 도량이었는데, 특히 황룡사의 9층 목탑은 신라 사람들의 신념 즉 주위 9개국을 정복하여 조공받을 것을 상징하였다. 미륵불이 하생하여 화랑이 되었다는 신념도 이러한 호국신앙의 표시이며 나아가 호국과 호법을 위하여 전쟁에 용감하기를 권하는 승려들의 설법은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 국민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편 이 시기에 밀교(密敎)가 크게 성행하여 질병 치유, 자식 구제 등의 기적을 행하는 당시 백성들의 현세구복적 신앙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고구려나 백제의 말기에는 불교도 변모하고 있었으니 백제의 겸익이나 신라의 자장이 그 대표이었던 계율종(불성의 요체는 계율에 있다고 주장) 외에 고구려의 보덕이 도교의 불로장생사상에 대항하기 위하여 금강불괴의 불성을 일체 중생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열반종(불성의 요체는 열반에 있다고 주장)을 제창하였으며 보장왕 9년(650)에 백제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겼다.

통일신라기에 원효(617~686)는 조화와 통합을 강조한 특색이 있는데, <대승기신론소>에서 당시 유행하며 대립하던 중관파(空 강조)와 유식파(識 강조)를 다 비판하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마음의 운동이 발현이며 자기 발전이라고 주장하여 공(空)과 식(識)의 대립을 지양하고 종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체만유는 같은 법성을 가졌으며 모두가 성불(成佛)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법성종과 서방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을 외치기만해도 극락에 이를 수 있다는 해동 정토종(아미타 신앙)을 개창하였다.

그러나 중관과 유식 계열은 각기 화엄종과 법상종으로 발전하였다.

의상(625~702)은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창설하고 중국과 다른 독특한 화엄사상을 전개하였다. 본래 화엄 사상은 일체의 천지만물을 비로자나불(법신불)의 현현(顯現)으로 보며, 불타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전우주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통일적 입장에 서 있다. 의상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일즉다, 다즉일의 원융(조화)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화엄 사상을 정립하여, 통일 수 다양한 세력들의 화합 원리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화엄사상은 중대 전제왕권이나 사회 안정에 부응함으로써 불국토 내의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법상종은 유식 사상과 미륵(미래불)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원측(613~696)은 당나라에 가서 현장의 제자가 되었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범어에도 능통하여 인도에서 가지고 온 유식삼십송의 주석서 성유식론을 번역하여 법상종 성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의 서명사에서 자기 학설을 강의하면서 규기(현장의 수제자)와 사상 논쟁을 벌이며 규기의 자은학파에 대해서 서명학파를 성립시켰다. 원측의 사상은 중국에서 자은학파로부터 이단시되고 배척을 받았지만 티벳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법상종에서 유식 사상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중 미륵신앙과 점찰법(점을 쳐서 참회하는 계율적 반성을 강조)을 추구하는 계열은 경덕왕 때 백제계 유민 진표(김제 금산사 중창)의 활약으로 미래에 현실의 고뇌를 해결해주는 미륵불이 출현을 갈망하는 고구려, 백제 유민에 널리 유포되었다.

문 18. 조선과 영국이 수호조약을 체결한 1882년 이후의 양국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82년의 조약을 영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조선이 아편 수입을 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②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 ③ 1902년 영국은 영일동맹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본이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④ 1905년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가쓰라 밀약에 앞서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치를 승인하였다.

정답: ④

* 조영수호통상조약 이후의 양국 관계

•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천진에 전해지자(1882. 5. 26) 영국은 프랑스에 뒤질까봐 서둘러 청의 알선(이홍장, 마건충)으로 월스와 조영하, 김홍집 사이에 6월 6일 조·영 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월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한 독일정부에게도 조약비준을 거부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치외법권 폐지 문제와 고율의 관세(30%), 아편수입 금지, 격하된 영국 여왕 칭호 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1883년 10월 27일(음 9월 27일) 청국의 알선을 배제하고 민영목이 영국측의 파크스와 직접 협상하여 개정된 조·영 수호통상조약이 1883년 11월 26일(음 10월 27일)에 조인되었고, 1884년 4월 28일에 비준이 이루어졌다.

조영조약은 한미조약과 비교하면 체제상으로는 조미조약을 모방하였으나 실질적인 권익면에서는 조일조약에 따라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거중조정에 관한 부분에서 조미조약 제1조는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한다”고 한데 비해 한영조약에서는 “타협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정에 노력한다”고 고쳤다. 치외법권의 경우 조미조약이 “이후에 조선의 법률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정하여 미국의 것과 일치하게 되면 철폐한다”고 규정한 대신 조영조약은 “영국신민이 조선에서 어떤 죄를 범하면 영국 재판당국은 영국 법률에 준거하여 이를 재판하여 처벌한다”고 하였다(제3조). 또 영국군함은 개항장 여부를 불문하고 조선 국내 어디든지 정박할 수 있고, 또한 선원의 상륙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다(제8조). 관세율은 월스 조약이 물품에 따라 10%에서 30%의 관세를 규정한 것을 5%에서 20%까지로 인하하고, 영국 수출무역의 주종이던 면제품은 7.5%로 정하였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조미조약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조영조약은 10년으로 하였다.

• 조선은 갑신정변 이후 더욱 심해진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러시아도 영흥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여 군사 훈련을 담당한다는 비밀 협약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청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인 문호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 러시아는 삼국 간섭(1895)의 대가로 랴오둥 반도에서 이권을 확보하고,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자 연합군에 가담하여 이를 진압하면서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배후 지역이며 부동항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인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양국이 청과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침해될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하였다(1902, 제1차 영·일 동맹).

• 러·일 전쟁(1904~1905)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로, 영국은 제2차 영·일 동맹(1905.8)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보호조치)를 승인하였다.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였다.

러시아는 군대 반란과 농민 봉기가 일어나 계속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게되자, 양국은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1905.9).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월권을 인정하며 한반도에서 물러났고, 일본은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어 바로 을사조약으로 이어졌다(1905.11).

문 19. 다음은 토지제도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시정전시과 시행	과전법 실시	직전법 폐지

①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발전과 공식적 소멸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② ㉠시기는 휴한 농법이 점차 극복되고 상경전이 확대되어 갔다.

- ③ ㉠시기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일반화되었다.
 ④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사적 토지소유관계의 발전과 함께 지주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정답: ③

* 고려와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와 경제상

고려 전시과: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수조권자의 중복을 막음)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8,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그러나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다시 분배해야 할 토지를 세습하는 것이 용인 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폐단은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고려 말에는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급진파 사대부 주도로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1391, 과전법)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려 후기 이래로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은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과전은 직·산관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 (토지 부족으로 태종 때인 1417년에 과전으로 지급될 땅 1/3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로 이급하였다가, 세원의 감소와 식량부족으로 세종 때인 1431년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로 이환하게 하였다).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

업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직전법의 폐지는 고려 이래로 내려온 수조권 지급 토지의 공식적 소멸을 의미하며, 국가 개입에 의한 전주-전객제가 토지의 사적소유에 기반을 둔 지주-전호제로 변하게 되어, 농민들의 부담은 1/10에서 1/2로 크게 증가하였다.

② 고려 시대에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휴한 농법)가 점차 줄어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상경전)가 늘었다. 밭농사는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고, 논농사도 고려 말에는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③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앙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하였다(광작).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널리 행해지면서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고, 논에서의 보리 농사는 대체로 소작료의 수취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보리 농사를 선호하였다.

문 20. 조선후기 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과 물(物)의 본성을 논하는 호락(湖洛) 논쟁이 전개되었다.
- ② 서울 부근에 거주하는 일부 남인학자들이 천주교를 수용하였다.
- ③ 복상기간(服喪期間)에 대한 견해차에서 예송(禮訟) 논쟁이 전개되었다.
- ④ 서인(西人)은 국왕의 예(禮)에 적용되는 원리가 일반인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 조선후기 사상계의 동향

예송 논쟁: 예송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 시(기해 예송)와 1674년 효종 비의 사망 시(갑인 예송)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 때 인조

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복상기간)가 쟁점이 되었다.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기해)과 9개월(갑인)설을 주장하였고,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기해)과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호락 논쟁: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18세기 초,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대한 동질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 논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시작되었으며, 인간과 동물 혹은 식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근본적으로 서로의 본성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으로 나뉘었다.

전자(인물성동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는 김창협, 이간, 이재이며, 후자(인물성이론)의 대표 주자는 한원진이다. 인물성동론을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서울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낙학(洛學) 또는 낙론(洛論)이라 하였고,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충청도지방에 살고 있어 호학(湖學) 또는 호론(湖論)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의 논쟁을 호락논쟁이라고 한다.

근기(近畿) 남인: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대부분 서울 부근의 경기 지방(기호 지방)에서 활약한 남인 출신이었다. 주로 성호 이익 제자로서 성호 학파라고 불리웠다. 이익의 제자 중에서 일부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까지 수용한 사람(신서파: 권철신, 이벽, 정약용)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자는 서양의 과학 기술은 받아들이면서도 천주교는 배척하였다(공서파: 안정복).